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300여명이 1월29일 상월선원을 참배하고 '백만원력 결집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조계종, 상월선원서 올해 첫 백만원력 기원법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염원이 하나로 모였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풍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에, 한국불교 백만원력 결집성취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무·산하기관 종무원들이 결집해 간절한 발원을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1월29일 상월선원에서 '백만원력 결집 원만 성취'를 위한 1차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법석으로, 총무부장 금국 스님과 기획실장 삼해, 재무부장 탄하, 문화부장 오심,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 부실장 스님과 각 산하기관장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300여명이 동참했다. 상월선원 결사가 한국불교계의 신심과 화합심을 모으는 계기로 감동을 전한 만큼, 그동안 개별 동참이 적지 않았지만 조계종 차원에서 법석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실장 삼해 스님은 축원을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모두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를 위한 기반임을 알기에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히 이룩되길 발원한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부처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부처님 지혜 광명이 온 법계에 충만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상월선원 총도감이자 특보단장 해일 스님은 거듭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9명의 스님들이 융맹정진에 입재한 이후 80여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혹한 등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월선원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1월29일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종무원 300여명 동참
이낙연 전 총리도 상월선원 참배 “건강·원만 회향 기원”
3월6일 경주 이어 보드가야·계룡대 등에서 법회 예정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고통 속에서 오직 수행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원력”이라며 “이러한 원력은 바로 조계종,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불자들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원력 결집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상월선원 결사 또한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백만원력 결집의 일환으로 시작됐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월선원 주지 원명 스님도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 성취되어 우리 종단이 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을 만들고, 동시에 9명 스님들의 수행력이 더해져 한국불교의 진정한 변화와 중흥을 이끌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금국 스님은 이날 법석을 시작으로 올한해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8차 기도법회 계획을 밝히며 남다른 의

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법석은 올해 첫 번째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위한 법회이자 올해 8차로 이어질 백만원력 결집기도의 첫발”이라며 “말게는 부다가야부터 가까이는 이곳 위례, 또 세종신도시 포교당 불사, 문화재보존센터와 한국불교 곳곳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것이라 강한 믿음과 신심이 이곳에 모였다. 확실한 믿음에 기반한 신심,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불사를 원만성취해 결국에는 한국불교의 변화와 중흥을 이끌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신학녀 위원장이 대표로 남독한 발원문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성취에 참석한 저희 종무원들은 본래 지닌 저마다의 신심과 원력으로 백만원력 불사에 적극 동

참하며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우리가 늘 서 있는 이 곳이 성스러운 도량임을 알고 삼보를 호지하면서 소외이웃, 편견과 차별로 아파하는 중생,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월선원을 찾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9명 스님들이 융맹정진 중인 상월선원 전막 앞에서 정진 방식을 듣고 “구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셔야하는지 무거운 마음이 든다”며 “동안거를 마치실때까지 건강 상하지 않고 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원명 스님은 이후 이 전 총리, 강정일 국회의장·최정호 부총리와 함께한 차담에서 “스님들의 수행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선 불자와 불자 아닌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상월선원에 모인 원력으로 불교계 나아가 국가와 세계가 화합하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의미를 짚었다.

한편 조계종은 3월6일 경주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2차 기원법회의 일환으로 열악곡 마애부처님 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인도 보드가야, 세종시 전월산, 육해공 영외법당 불사처인 계룡대 등에서 잇따라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그 일환으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10·27기념관 불사 회향을 위한 법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례=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사람 안사는 곳서 “소음 피해” 운운 상월선원 왜곡 보도한 MBC의 궤변

입주예정자 입 빌려 소음피해 운운
종교용지에 포교당 짓는 것도 왜곡
불교방송 영상자료 무단도용 논란
조계종 “공영방송 책임성 가져야”

수년째 조계종에 대한 편파 왜곡방송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가 이번에는 9명 스님들이 동안거 결제 중인 ‘상월선원’을 흡집내기 위해 악의적 편향으로 사실을 왜곡한 방송을 내보내 불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특히 MBC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돼 아직 주민이 살지도 않는 곳에서 소음측정을 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조계종이 종교용지를 분할 받아 포교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문제 삼아 비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는 이번 보도에서 불교방송의 영상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MBC는 1월29일 ‘뉴스데스크 바로간다’를 통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9명 스님들이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고 정진하고 있는 상월선원을 보도했다. MBC는 이날 방송에서 불자들이 상월선원 정진대중들의 목숨 건 정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를 문제 삼으며 ‘주차 및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복위례 택지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다. 상월선원과 맞닿아 있는 ‘위례포레자이 아파트’의 경우도 2021년 5월 이후에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도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더구나 평일 낮 시간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MBC는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인터뷰를 통해 상월선원으로 인해 소음과 주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은 “(MBC가) 공사현장 한가운데서 소음 측정을 한 뒤 모든 원인을 상월선원 측으로 몰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MBC가 유감스럽다.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MBC는 또 이날 보도에서 “원래 이 땅에는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면서 “조계종이 계획을

바꿔 이곳에 대형 포교당을 건립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월31일 반박 논평을 내고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조계종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 매입을 위해 2014년 7월 당시 특수전사령부 및 제3특수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되던 호국사자사부지(약 3000평)에 대해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및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접 매입하고, 해당부지에 포교와 전법,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건립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2015년 성남 봉국사에 건립하려 했던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중단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해 동일한 부지에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함께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9년 종교시설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각종 절차상 문제와 사업부지의 과밀현상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됐다. 대신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본래 목적대로 도심포교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건립대상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는 원래 신도시 도심포교당 건립을 위해 중단이 매입한 것이고, 현재 당초 목적대로 도심포교당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MBC의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용지 내에 원래 문화재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계종은 이어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송을 했다”며 “조계종은 수년전부터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아 오고 있는 MBC의 모든 취재 등에 일일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월선원 외화대중들은 1월30일 입장문을 내고 “MBC는 아홉 분의 목숨 건 천막결사를 불법적이고, 저속한 수행문화로 표현하는 등 심각한 해를 자행했다”며 “MBC는 이번 왜곡 보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개금불사 모연문



삼보님전에 귀의하옵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자리잡고 있는 동명불원은 고 강석진 회장의 원력으로 1977년에 창건되어 대웅전에 석가모니불,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자들의 청정한 기도·수행정진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경대상인 삼존불의 성상이 세월의 흐름속에 금분이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이에 동명불원에서는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삼존불에 새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개금불사는 진리의 옷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이며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가운데 개금하는 공덕보다 나은 공덕은 없습니다.

삼존불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모연에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복전이 될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이 사 장 박영근
(재)부산동명불원 주 지 승 찬 합장
신도회장 성재곤
(재)부산동명불원개금추진위원장 이재동

개금불사 모연 동참안내

● 문의/접수 : 종무소 051)626-4337, 624-7667

● 동참보시(은행구좌) : 부산은행 036-01-037861-9 (재)부산동명불원